제시문 <가>,<나>,<다>는 공통적으로 과학적 탐구를 할 때 인과관계를 부정적으로 본다. 제시문<가>는 사건들을 이성적으로 관찰하여도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고 본다. 사건들의 순서는 원인과 결과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많은 사건들이 반복된다고 해도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됨을 보장 할 수 없다. 제시문<나>는 인과관계는 불필요하다고 본다. 과거에서 현재까지 데이터가 많아져서 사건들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로 충분하기 때문이다. 즉, 상관관계만으로도 사건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미래예측을 위한 인과관계 추론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. 제시문<다>는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다. 일어난 여러 사건들 중 정확한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 예측도 불가능하며 일어난 사건들을 전부 알지도 못한다.

하지만 제시문<가>,<나>,<다>는 인과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다르다. 제시문<가>는 인간의 감각과 논리의 한계를 그 이유로 본다.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관계는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. 또한, 많은 경험과 관찰로 인해 정확한 사건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관계는 알 수 없다. 인간의 감각으로는 그 사이관계를 올바르게 추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반면, 제시문<나>는 페타바이트 시대에 데이터의 증가를 그 이유로 본다. 덕분에 많은 수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상관관계만을 알아도 특정 패턴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해졌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인과관계는 필요가 없어졌다. 이와 달리, 제시문<다>는 어떤 사건의 등장에는 다수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. 특정 사건들은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일일 수 있어서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. 더욱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사건이 있다고 해도 인간은 그 사건의 존재를 모를 수 있다. 즉,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또한 파악하지 못한다.